

##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가격공간의 리용

황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격을 옳게 제정하고 적용하여야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계획화하고 경제적리산을 바로할수 있으며 경영활동에서 손실을 본것과 리익을 본것을 똑똑히 따지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3권 375페이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격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경제적공간의 하나이다. 과도기에 사회주의사회에는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존재한다. 전인민적소유안에서도 국영기업소들은 경영상상대적독자성을 가지는것으로 하여 생산물은 상품이나 상품적형태라는 사회적형태를 취하게 되며 거기에 지출된 사회적로동은 가치 또는 가치형태로 평가되어 그 화폐적표현인 가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격으로 표시된 생산물은 서로 다른 소유나 독자적인 경영의 단위들사이에 화폐를 매개물로 하여 류통되며 생산물의 사회적분배도 1차적으로는 화폐의 일정한 량으로 실현된다. 때문에 가격공간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격이 노는 중요한 역할로부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한다는것은 가격이 생산과 류통과정에서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민경제부문과 단위들사이의 재생산적연계를 보장하고 생산물의 사회적분배를 정확히 실현하는 보충적인 수단으로 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가치법칙의 내용적 및 형태적작용에서 자연발생성을 철저히 극복하고 그것이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더 잘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도록 한다는것이다.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물생산에 요구되는 사회적로동의 크기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가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생산물가격제정에서 기본은 그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로동의 크기를 정확히 타산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사회적필요로동시간에 대한 과학적타산문제에 귀착된다. 가격제정의 기초인 사회적필요로동시간을 과학적원리에 기초하여 바로 타산하여야 가격균형도 잘 맞출수 있고 경제적공간으로서의 가격이 자기의 사명에 맞게 옳게 리용될수 있다.

사회적필요로동시간에 대한 타산에서 과학적인 원리는 전문화수준이 높고 기술이 앞선 단위의 생산조건에서 지출되는 사회적로동량을 기준으로 정하는것이다. 가격제정의 기초인 사회적필요로동시간은 사회적인 평균생산조건에서 정해진다. 사회적인 평균생산조건이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단위들의 생산조건들의 평균수준이다. 그것은 여러 생산조

건들의 단순한 산수적인 평균이 아니라 생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단위의 생산조건에 가깝게 정해지는 수준이다. 다른 단위들에 비하여 생산물을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사회적인 평균생산조건은 그 단위의 생산조건에 더욱더 가깝게 정해진다. 같은 시간동안에 다른 단위들에 비하여 생산물을 많이 생산한다는것은 그만큼 해당 단위가 전문화수준이 높고 기술이 앞선 단위라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사회적필요로동시간은 응당 전문화수준이 높고 기술이 앞선 단위의 생산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가깝게 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시장기구의 작용에 의하여 수많은 우여곡절과 마찰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선 가격공간의 옳은 리용은 엄격한 계산제도를 세워 생산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사회적으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가격공간의 옳은 리용이 사회적으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것은 가치 및 가치형태의 내용으로 되는 사회적필요로동시간에 대한 타산원리와 관련된다. 각이한 생산조건에서 같은 종류의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출되는 개별적으로동의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생산물의 생산에 요구되는 사회적필요로동량만큼 평가되어 같은 액수의 가격으로 표시된다. 때문에 일정한 생산물의 생산에 사회적필요로동량보다 많은 로동이 지출되는 경우 초과된 량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회적인정을 받지 못하여 사회총로동의 구성부분으로 되지 못하는 지출은 불필요한 지출로, 낭비로 되며 그러한 생산물을 생산한 단위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인 평균생산조건보다 생산조건을 개선하여 생산물 단위당 지출을 사회적필요로동량보다 줄이면 그만큼 많은 리득을 얻게 된다.

사회적필요로동시간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제정된 가격은 기업체들로 하여금 생산에 지출되는 비용을 엄격히 계산하고 손익관계를 따져보며 주어진 설비와 자재, 로력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한다.

기업체들이 구체적인 타산도 없이 자기의 전문생산지표가 아닌 다른 지표들까지 망탕 만들어내는 경우 기술적으로 앞선 전문생산단위들에 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그러한 제품이 포함된 기업체의 기본생산물은 자연히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생산물의 가격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화수준이 높고 기술이 앞선 단위의 생산조건에서 정해지는것만큼 이러한 기업체의 생산물은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판매수입가운데서 원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에 기업체의 수입은 떨어지게 된다. 여기로부터 기업체들은 자연히 타산을 구체적으로 해보고 자기의 전문생산지표가 아닌 생산물의 생산은 그만두게 되며 거기에 쓰이던 원료, 자재를 전문생산단위들에 넘겨주어 그로부터 생산물을 받아다쓰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설비, 자재, 로력을 비롯한 생산요소들의 리용률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가격공간의 옳은 리용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도록 효과적으로 자극한다.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는데서 성과여부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생산자대중의 적극성발양정도에 중요하게 달려있다. 생산자대중이 기술발전사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할수록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은 다그쳐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생산의 주인, 경제의 주인으로서 기술개건의 혜택이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돌려지기때문에 생산자대중은 이 사업에 자각적열성을 내여 참가하게 된다. 생산자대중의 자각적열성에 물질적자극을 적절히 주면 그들은 보다 높은 창발성을 내여 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기술개건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그들에게 물질적자극을 주는 방법이 다름아닌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이다.

기업체들이 국가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로동보수와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생산을 많이 하여 수입을 늘여야 한다. 그런데 생산물의 가격이 해당 분야들에서 전문화수준이 높고 기술적으로 앞선 단위에서의 비용지출을 기준으로 정해지기때문에 뒤떨어진 기술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여도 수입을 늘일수 없게 된다. 하루빨리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생산과정들의 기술개건을 다그치지 않으면 기업체들은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도 계획에 예견된 수입을 보장할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국가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수행할수 없는것은 물론 종업원들에 대한 로동보수와 후방공급사업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 여기로부터 기업체의 일군들로부터 종업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기술개건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보다 열성적으로 이 사업에 참가하게 되며 앞선 단위의 기술수준을 따라잡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 인민경제의 기술개건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또한 가격공간의 옳은 리용은 옳바른 가격균형을 보장하여 부문과 단위들사이의 재생산적련계를 원만히 실현하고 로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옳바른 가격균형은 서로 다른 생산물들의 가격수준상차이를 거기에 각각 지출되는 사회적로동량에서의 차이만큼 두는것을 통하여 보장된다.

옳바른 가격균형을 보장하는것은 부문과 단위들사이의 재생산적련계실현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의 중요방도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은 서로 설비와 자재, 원료를 주고받는 등 밀접한 재생산적련계속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그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물은 가격에 기초하여 팔고사는 방법으로 거래되게 된다.

때문에 가격균형이 잘 맞아야 공장, 기업소들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리운을 조성하여 국가에 리득을 줄수 있으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정상화해나갈수 있다. 반면에 가격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지 못하게 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계속해나갈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재생산적련계가 파탄되게 된다.

한마디로 가격공간의 옳은 리용에 의해서만 옳바른 가격균형이 보장될수 있으며 나아가서 부문과 단위들사이의 재생산적련계가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가격공간의 옳은 리용으로 옳바른 가격균형이 보장되고 인민경제부문과 단위들사이의 재생산적련계가 원만히 실현되면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된다.

가격공간의 옳은 리용으로 옳바른 가격균형이 보장되면 로동에 의한 분배도 정확히 실현될수 있게 된다.

로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현하는것은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

로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현하려면 모든 근로자들이 얼마나 일하였는가 하는것을 과학적으로 계산평가해주는것과 함께 가격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그것은 근로자들에게 화폐형태로 지불되는 로동에 의한 분배가 최종적으로는 그것으로 각이한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기때문이다.

가격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근로자들에게 아무리 일한 정도에 따라 화폐를 정확히 계산지불해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각이한 상품들을 구입하는 과정에 실지 차례지는 생활자료의 량이 그들이 수행한 로동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생산물들의 가격수준상차이를 그 생산에 요구되는 사회적필요로동의 각이한 크기만큼 두어야 로동에 의한 분배로 근로자들이 구입하는 생활자료의 량이 그들이 수행한 로동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할수 있다.

이와 같이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생산과 류통과정에 사회적로동의 합리적리용과 기술발전사업을 자극하며 인민경제부문과 단위들사이의 재생산적련계를 보장하고 생산물의 사회적분배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등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지 않게 해결할수 있게 한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이 땅우에 하루빨리 부강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할것이다.